

한솔LCD, LED 웨이퍼용 잉곳 생산

300억원 투입 하반기 양산 ... 원재료 수직계열화 구축해 경쟁력 확보

한솔LCD가 LED(Light Emitting Diode) 웨이퍼용 잉곳(Ingot)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솔그룹에 따르면, 한솔LCD는 300억원을 들여 잉곳 생산라인을 도입하고 일본과 러시아 등 선진 잉곳 생산기업들로부터 기술 자문을 구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솔LCD는 3월 LED용 웨이퍼 생산기업인 크리스탈온을 인수한데 이어 잉곳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원재료 생산라인을 수직계열화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잉곳은 산화알루미늄 덩어리로 LED용 웨이퍼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웨이퍼는 잉곳을 얇게 도려낸 원형판으로 LED 칩의 원료로 쓰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4>